

눈길 끄는 특·특·행·정

“읽은 책 가져오면 상품권 드려요”

남원시, 독서 장려 ‘책값 돌려주기’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우수상

남원시의 독서장려시책이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시는 코로나19 시대 시민 독서진흥과 지역 서점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책값 돌려주기 사업’이 전북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이 대회에는 전북도 분청과 소속 공공기관, 도내 시·군에서 총 42건의 사례가 접수됐고 도민 온라인 심사와 1·2차 사전심

사를 거쳐 6건의 우수사례가 본선을 통과해 순위를 가렸다.
우수상을 수상한 남원시 ‘공공도서관 책값 돌려주기 사업’의 사례는 지역 서점과 협업해 시민들이 구입해 읽은 책을 도서관에 제출하면 남원사랑상품권으로 교환해 줘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민들의 독서량을 늘리는 데에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또 도서관에 접수된 도서는 시가 운영하는 크고 작은 도서관에 소장도서로 배분된다.
이원주 남원시장은 “앞으로도 적극행정 문화가 공직사회 내에 확산되길 바란다”며 “시민이 체감하고 감동하는 행정이 펼쳐지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군산여행 어땠나요”…후기 공모

시, 10월까지 관광 활성화 이벤트
매월 10명 선정 10만원 상품권 증정

군산시가 오는 10월까지 5개월간 군산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 후기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포스트 코로나 군산 관광 활성화에 시동을 거는 이번 이벤트는 군산의 대표 관광지 뿐 아니라 숨은 관광명소, 맛집, 문화행사 등 다양한 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개인 SNS를 소유한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매월 우수 여행 후기 10명을 선정해 10만원 상당의 군산사랑상품권을 제공할 계획이다.
여행 후기는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개인 SNS 계정에 여행 사진과 해시태그(#군산관광 #군산여행후기 응모)를 첨부한 군산 여행 글을 작성한 후 군산 문화관광 홈페이지 ‘커뮤니티/군산여행후기’ 게시판에 SNS 링크 주소와 연락처를 등록하고 이벤트 신청을 하면 된다.
서광순 군산시 관광진흥과장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지역의 맛과 멋 그리고 볼거리 등 각종 콘텐츠 후기가 풍성하고 다양하게 접수되길 바란다”고 했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11일 유진섭 정읍시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떡을 바탕으로 도시활성화를 이루기 위해 조성한 ‘섬고를 떡 어울림 플랫폼’의 개관식이 열렸다. <정읍시 제공>

정읍시 ‘떡 어울림 플랫폼’ 개소 떡 문화 보존·개발 토대 마련했다

교육·체험 공간…관광자원 육성

정읍시의 도시재생 테마 ‘떡·차·면·술’ 중 떡을 통해 도시활성화를 이루고자 조성했던 ‘섬고를 떡 어울림 플랫폼’이 지난 11일 개관했다.
시기동 일원에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떡플랫폼은 떡의 역사와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콘텐츠와 맞춤형 프로그램 등을 개발·운영함으로써 지역의 대표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된다.
떡 관련 메뉴 개발과 창업교육 등을 통해 신규 일자리 창출에도 활용된다.
연면적 357㎡ 3층 규모인 떡플랫폼은 1층에 떡 산업의 역사와 제조 과정 등을 소개하는 전시실을

비롯해 각종 떡, 쌍화차 등을 맛볼 수 있는 떡 카페가 들어섰다. 2층에는 떡 관련 교육과 각종 체험 공간이 갖춰졌고 3층은 사무실과 워크숍 공간, 옥상 휴게 공간 등으로 꾸며져 있다.
떡플랫폼에서는 앞으로 가족단위 방문객과 단체 학생 등을 대상으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읍의 떡문화를 알려 특화산업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거점 역할을 하게 된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성과가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다”며 “떡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기술력과 경쟁력을 확보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정읍시 차상위 계층 암 환자
의료비 지원 300만원까지 확대

정읍시가 오는 7월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고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개편에 따라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가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된다. 특히 현재는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됐지만 내달 1일부터는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이 지원된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고창군 ‘높을고창 영화학교’ 교육생 모집

내달 9일까지…영화 인력 양성

고창군의 지역 영화전문인력 교육 프로그램인 ‘높을고창 영화학교’가 교육생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다음 달 9일까지며, 교육 기간은 7월 20일~25일이다.
높을고창 영화학교는 영화제 실무와 영화제작에 관한 것으로 고창 농촌영화제의 미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또 지역을 배경으로 한 영화 콘텐츠 강화도 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교육 기간에는 현직 영화

인과 영화전문가가 직접 영화 제작과 실무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교육생들이 제작한 영화는 올해 고창군에서 열리는 제4회 고창농촌영화제에서 상영될 예정이다.
신청 대상은 영화 제작과 영화제 운영에 관심 있는 고창군 또는 전북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접수 방법은 고창농촌영화제 조직위 홈페이지(grrf.co.kr)에서 신청 가능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순창군 섬진강 향가유원지 패류채취 허가

14일~25일 어업허가 신청 접수

순창군이 섬진강 향가유원지 등에 대한 패류채취업 허가를 결정했다.
순창군은 최근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를 갖고 패류채취업 허가기준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 결정에 따라 섬진강 임실군 경계부터 향가유원지 곡성군 경계, 오수천 동계면 주월리 배재교부터 적성면 구남교까지 내수면어업에 임할 수 있도록 했다.

내수면 어업은 5년 범위 내에서 관할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군은 지난 2016년 7월부터 2021년 6월말까지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조정협의회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 패류채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내수면 어업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주민은 오는 14일부터 25일까지 농축산과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자를 대상으로 허가 기준에 따라 자체 심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허가자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순창=정영근 기자 jyg@

익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익산시가 사업주의 경영 부담 완화와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추가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납부한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시는 1차 접수를 받아 총 1481개 업체(근로자 3657명)를 지원했다.
올해는 해당 사업의 집행 잔액을 활용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1차 미신청자 가운데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 내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이다.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오는 7월 2일까지다.
단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소속기관, 임금채불 명단 공개 중인 사업주 등으로부터 다른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사업장을 포함해 국가 등의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 지원이 제외된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그린알로에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